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제124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 금강선원 개원28주년 기념법회 봉행

4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금강선원은 개원 28주년을 맞아 오는 4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개원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헤거 큰스님께서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인재양성의 뜻을 세우고 도심속 수행도량 금강선원을 개원하신지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개포동 삼우빌딩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금강선원은 현재 4층 대법당과 소법당은 경전공부, 5층은 참선수행 그리고 6층은 기도와 의전행사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경전법회를 비롯하여 월요일 선하불교대학과 성인 기초참선반, 일요일 가족법회 그리고 어린이 명상교실과 청소년 참선교실, 한문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법회와 문화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보살사상만일수행결사운동을 선포, 입재하여 불자들이 배운 것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봉사와 실천을 통해 사회에 회향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강경 강송을 생활화하고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금강경강송대회를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거 큰스님께서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 이전에 수행의 종교가 되어야 하고, 불자는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인격을 향상시키고 수행의 성과를 이웃에 회향하여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금강선원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정법을 전파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도반들과 함께 동참하시어 뜻깊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춘계 사찰순례 떠납니다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4월 20일(수) 백제의 고도인 공주 계룡산 감사, 신원사로 사찰순례를 떠납니다. 충청 제일의 명산으로 알려진 계룡산에는 주요 관문마다 이름난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 감사는 계룡산의 서쪽에 있고 신원사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백제 구이신왕 1년(420) 고구려 승려 아도 화상이 창건하였으며, 신라 헌안왕 3년(859) 의상대사에 의해 증수되어 화엄도량으로 삼아 화엄종 10대 사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 가는 길은 산줄기를 따라 아름답디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엄숙함마저 느껴지는 절입니다. 문화재로는 삼신불과 불탱화(국보298), 철당간지주(보물256), 부도탑(보물257)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입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왜군으로부터 청주를 지킨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원이 있습니다.

신원사는 백제 의자왕 11년(651) 고구려 승려 보덕 화상이 창건하였으며, 대웅전과 독성각, 명부전을 비롯하여 여러 선방들이 아담하고 정갈스러운 품위를 갖추고 있으며 뒤쪽 중약단은 장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자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절입니다. 절 뒤쪽 산길 주변에는 금용암과 고광원, 불이암 등 불교와 민간 신앙이 묘한 조화를 이룬 암자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떠나는 사찰순례 법회에 도반들과 함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4월 20일(수) 오전 7시 30분
- ▶ 장 소 : 국민은행 앞
- ▶ 동참비 : 4만원

헤거스님의 노자 도덕경 강의 - BBS방송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04:00, 15:30, 21:00에 방송됩니다.  
▶ 재방송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5:30에 방송됩니다.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일 시 : 매일 낮매주 토요일 밤 7:00~10:00  
▶ 장 소 : 대법당

##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연등 접수를 시작합니다. 큰 원으로 심지 삼고 대자비로 기름 삼은 지혜 광명의 등불을 밝혀 자비와 나눔으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 ❁ 화엄등 : 대법당(4층) 10만원
- ❁ 소원등 : 기도법당(6층) 5만원
- ❁ 광명등(영가등) : 소법당(4층) 5만원
- ❁ 법계등 : 탄허기념박물관 5만원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 ▶ 예금주 : 금강선원
- ◆ 금강선원 연등은 1년등입니다.



### 2016년 신년 7일 합동천도재를 회향하고



정성을 다한 천도재를 회향하며

지난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신년 7일 합동천도재 회향이 있었습니다.

매년 음력 1월 18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신년

7일 합동천도재는 돌아가신 부모 조상들의 극락왕생과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혜거 큰스님께서 “기도란 일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나를 없애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념하여 무렵이 되면 업장이 소멸되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일념을 반복하여 무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무야’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 조상들의 천도를 위해 일념으로 7일 합동천도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업장소멸과 기도 성취를 기원합니다.

### 제41기 선하불교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입문과정 중 기초교리를 배우며

지난 3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제

41기 선하불교대학이 개강되었습니다. 선하불교대학은 불교의 입문과정으로서 매주 1회(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혜거 큰스님께서 개강식에서 “불교는 인본주의 바탕으로 깨달음을 가르치는 수행의 종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깨달아서 자기 길을 스스로 가야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수강생 모두 불교 입문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깨닫는 특별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 제28기 기초참선과정을 시작하며



이론 강의 후 진행되는 좌선수업 중에서

1년에 2번, 총 14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금강선원 기초참선반이 지난 3월 7일(월) 오후 2시 30분 대법당에서 개강되었습니다. 불자뿐 아니라 참선

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수강하는 금강선원 기초참선과정은 혜거 큰스님의 강의와 좌선 지도로 이루어지는 강좌입니다.

개강 첫날,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찬 수강생들을 위해 혜거 큰스님께서 “참선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자세 지도에서부터 사마타 수행법과 위빠사나 수행법, 화두 참구법에 대한 설명으로 첫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참선 과정은 14주간 『좌선의』를 교재로 이론 강의와 좌선으로 진행됩니다.

###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 혜거 큰스님 강의



명상 교육과정 중 혜거 큰스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지난 3월 12일(토) 오후 2시 금강선원 대법당에서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프로

그램 중 혜거 큰스님의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혜거스님)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다양한 명상이론과 실습을 통해 명상전문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설한 명상전문지도사과정 중 협회주관교육과정입니다.

강좌는 3월 9일(수)부터 5월 21일(토)까지 금강선원과 행복선원에서 진행됩니다.

※ 위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 [www.kamto.net](http://www.kamto.net) 참조바랍니다.

###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 1500일 회향법회



혜거 큰스님으로부터 환희지 증서를 받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가 1500일 회향을 맞이하여, 3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회향법회가 있었습니다. 회향법회는 환희지(1000일 수행자, 17명) 증서 수여 및 수행상(4명), 법시상(7명) 시상식과 수행수기 발표에 이어 혜거 큰스님 법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나 자신보다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꾸자는 것이 보살사상 운동이다. 이러한 보살사상을 선양하는 것이 만일수행결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를 없애고 세상을 위해 발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만일수행결사회는 총 85개팀으로 560여명의 회원이 동참하여 수행중입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동참하여 보살사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혜거 큰스님의 만일수행결사 1500일 회향법문 동영상 참조 (금강선원 홈페이지 [www.geumgang.org](http://www.geumgang.org))

- ▶ 환희지 : 묘법성, 해광월, 대각화, 정신행, 공덕해, 원명화, 보리성, 청량월, 진화성, 무구심, 본원심, 돈명심, 청정화, 명성화, 지안심, 여래심, 각진심
- ▶ 수행상 : 해광월 청정화 원명화 정신행
- ▶ 법시상 : 심정재(자성행), 박수복(성도화), 박창자(진화성), 허인혜(각진심), 이상순(진가), 박주심(여여심), 이한분(무량성)

#### 박물관 소식

○ **학예인력 지원사업 기본연수 및 우수사례 워크숍**  
2월 29일(월)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2015년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와 2016년 학예인력 지원사업 전체 일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 **교육인력 지원사업 설명회& 길위의 인문학 설명회 참석**  
2월 29일(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교육인력 지원사업 설명회와 ‘길위의 인문학’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길위의 박물관 사업 결과 발표와 2016년 새롭게 진행될 길위의 인문학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교 신입생 O.T. 개최**  
2월27일(토) 보광명전에서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미술치료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박물관 전체에 퍼져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 **국립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사업 ‘행복에너지 만들기’**  
탄허기념박물관, 수서 경찰서와 함께 하는 ‘행복 에너지 만들기’ 교육이 국립민속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 한달간 매주 (토) 5회 진행됩니다. 미술 심리 치료 등 색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⑫



절기가 춘분을 지나니 봄기운이 완연하고 만물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은 개화하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새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것이고 사람도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점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왜 그런지 차분히 우리의 사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이 시끄러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어려움을 이겨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각자가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만 옳다고 내 목소리만 너무 크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 어려움을 참아내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서 양보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내보낸 잘못이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는 하나하나 모두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생각을 하고 공동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똑똑한 독불장군만 많이 키워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평생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학생처럼 사는 자녀를 길러놓았으니 세상이 편안해 질 수 없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는 보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다음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정신을 바르게 하고 건강한 생활로 자녀를 길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옳은 일인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좀처럼 어른노릇 하시려는 분이 잘 안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애착이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세상과 떨어져 관조하는 맛을 부려보세요.

採集般若하며 繪貫華嚴하며  
提掣毘尼하며 發明唯識이니라  
반야를 재집하고 화엄을 일관하고 계율을 지니고 유식을 밝혔다.

채집반야採集般若하며 윤관화엄繪貫華嚴하며. 원각경을 번역하려고 반야사상을 모으고 화엄경을 전부 실타래처럼 엮어서 관통시켰으며. 관통은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규봉스님께서 원각경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경전을 모으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제설비니提掣毘尼하며 발명유식發明唯識이니라. 비니를 정리하였으며 유식까지도 밝게 폈다. 비니는 비니경으로 율장, 계율을 말한 것입니다. 원각경 주석을 하기 위해서 율장 유식 화엄경 반야경 등을 총 망라하여 발주를 하고, 이 네 가지와 비교하여 원각경 주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규봉스님의 원각경 서문입니다. 규봉스님은 원각경을 으뜸으로 생각하셨는데, 원각경은 삼관법-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있고, 또 사마타수행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스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반야사상을 모으고 모든 경전의 집합체인 화엄경을 관통하였고 율장을 정리하고 유식까지 밝게 알게 되었다.

然이나 醫方萬品에 宜選對治며  
海寶千般에 先心如意니

그러나 의방은 만품이지만 병에 알맞게 치료해야 하고 바다의 보배가 천 가지지만 먼저 여의주를 구하여야 한다.

연然이나 의방만품醫方萬品에 의선대치宜選對治며.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만 가지가 되어도 마땅히 가려서 대처하여야 하며. 중생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른 처방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보천반海寶千般에 선심여의先心如意니. 바다의 보배가 천 가지라도 먼저 마음에는 여의주가 있어야 하니. 바다에 수많은 보배가 있어도 그중 여의주가 으뜸이라고 하는데 여의주는 곧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보배이고 곧 마음의 보배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수만 가지가 되더라도 병을 다스릴 때는 그에 딱 맞는 처방으로 대처해야 하며, 바다의 보배가 천 가지가 되더라도 먼저 마음에는 여의보주가 있어야 하니.

觀夫 文富義博은 誠讓雜華어니와  
指體投機는 無偕圓覺하니

문장이 풍부하고 뜻이 쾌박하니 참으로 참화만은 못하나 본체를 가려져 기틀을 단짐에 원각경을 함께할 만한 게 없다.

관부觀夫 문부의박文富義博은 성양잡화誠讓雜華어니와. 문장이 풍부하고 뜻이 넓은 것은 진실로 화엄경에 양보하지만. 관부觀夫는 글을 전환하기 위한 발어조사로 뜻을 새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엄경을 잡화라고 하는 이유는 화엄경이 일승경전 소승경전 인천 교경전 등 모든 경전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투기指體投機는 무해원각無偕圓覺하니. 당체자리를 지목하고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심기에 딱 맞게 투합하는 것은 원각경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체體는 당체이고 근본자리이고, 기機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규봉스님의 안목에는 어떤 경전보다도 당체나 근기에 맞게 설명하는 경전으로는 원각경이 제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원각경이 문장이 풍성하고 뜻이 두루 넓은 것은 진실로 화엄경에는 양보하지만, 당체자리를 지목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에 합쳐지는 것은 원각경과 짝할 것이 없으니.

故로 參詳諸論하며 反復百家하여  
以利其器코사 方爲疏解호니

그러므로 제론을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백가에서 반복하여 그간에 따라 이롭게 하여야 비로소 소해할 수 있다.

고故로 참상제론參詳諸論하며 반복백

가反復百家하여. 그 때문에 모든 논서들을 참고하여 살펴보고 백가의 여러 학문을 반복해서 공부하였다.

이리기기에以利其器코사 방위소해方爲疏解호니. 그릇, 도량에 이익이 되고자 바야흐로 상세한 주석을 다니. 나를 이롭게 하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지금 이 해설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므로 여러 논서를 자세히 참구하고 백가들의 많은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여 각기 도량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주석을 붙이니.

冥心聖旨하며 極思研精하여  
義備性相하고 禪兼頓漸하여  
勤成三卷하여 以傳強學하노니

성인의 뜻에 마음이 일치하고 지극히 정밀하게 연구함을 생각하여 뜻은 성상을 갖추고 선은 단점을 겸하여 세 권으로 만들어 예써 왔던 학문을 전하였다.

명심성지冥心聖旨하며 극사연정極思研精하여. 마음에는 성지, 부처님의 뜻을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다하려는 생각으로 연구를 정밀하게 하여.

의비성상義備性相하고 선겸돈점禪兼頓漸하여. 뜻이 마음과 몸에 갖추어지고 참선은 돈오와 점수를 겸비해서. 성성은 근본 체를 말하고 상상은 밖의 용이 되니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서 참선은 돈오와 점수를 겸한다는 뜻입니다. 참선은 각자 자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깨달음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도 이루어지고, 빗방울 소리를 듣는 찰나에도 얻어질 수 있는 돈오의 방법이 있고, 일념으로 꾸준히 탐구해서 얻는 점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능성삼권勤成三卷하여 이전강학以傳強學하노니. 어렵게 세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힘써 배운 것을 모두 전하노니.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힘써 이룬 것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대중을 위해서 어렵게 공부한 것을 모두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뜻을 새기고 극진한 생각으로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뜻을 몸과 마음에 갖추고서 참선은 돈오와 점수를 겸비하여 힘들게 세 권의 책을 완성하여 힘써 배운 것을 전한다.



#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 수행수기

##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참선

제가 금강선원과 인연 맺은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2011년 납일 탄허기념 박물관에서 송구영신 행사인 통알의식을 보면서 '우리의 불교전통의식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도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동요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보살사상을 실천하는 만일수행결사를 권선하는 안내말씀과 조그마한 책자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처음 접하는 행사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금강경 야보송 강의를 들으면서 34기 선하불교대학교 22기 기초참선과정을 수료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이가 같이 어느 정도 이해와 알음알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선원에 온 보람도 자주 느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시골 농장에서 감 수확을 하면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치료를 하느라 선원에 오지는 못하였으나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한 보살님의 도움으로 헤거 큰스님의 화엄경 강의와 문광스님의 탄허사상 강의는 테이프를 통해 빠지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친구 딸 결혼식에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턱이 도로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외부출입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부처님께 감사 올립니다.

그 당시 도움을 준 보살님과 몸 상태를 이야기하던 중 시력초점교정을 위한 방법으로 집중표를 활용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선방 산철 등록을 하였고, 덕운 팀장님의 권유로 만일수행결사 회원으로 등록하여 참선수행 중에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몸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쪽 눈의 초점이 일치하지 않아 물체가 이중으로 보여 눈 초점 교정의 목적으로 집중표를 활용하면서 기초참선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면역력과 지구력, 체력 등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였지만 집중표에 눈을 집중시키는 것 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눈치껏 옆 선배 도반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선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거르지 않고 실천한 결과 기혈 순환이 개선되면서 시력초점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선 수행하여 내 안의 '因'을 맑고 밝고 튼실하게 가꾸고, 여러 도반님들과 좋은 '緣'을 쌓아서, 혹시 내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금생보다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 발원해봅니다.

글 / 무척(서동수)

## 참선 수행의 삶으로

제 기억 속 부처님과의 인연은 정월기도나 초하루 기도를 위해 부처님께 드릴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골 절을 다니시던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따라 다니던 코흘리개 시절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가시는 날엔 기도가 끝나면 떡, 과일 등 먹거리가 풍족했기에 어린시절의 저에게는 또 다른 명절이기도 했지요.

그런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불교학생회에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여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쫓아다니고 일요법회에 참석을 하며 교회 오빠가 아닌 절 오빠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엄마란 이름으로 아내란 이름으로 살면서 매년 초파일 등에 하나 걸고는 불자라 이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달릴 때 갖난아가기 엄마 품으로 파고들 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든 고비 고비 마다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험난한 역경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일상이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녁에 가서 삼배만 하고 오는 게 전부였고, 시간이 맞으면 기도에 참석하는 게 전부였던 제가 작년에 개포 5단지로 이사를 하면서 금강선원과 정말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선방스님들만 참선을 하시는 거란 인식을 하고 있던 저에게 5층에 있는 시민선방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에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27기 기초참선반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여 헤거 큰스님의 지도하에 정말 열심히



기초 참선과정을 수료 하였습니다.

처음엔 앉아 있는 자체가 고역이었고, 눈은 깜박이고 눈물은 나고, '참 사서 고생하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스님께서 '화두'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면 도대체 '화두'가 뭘지 감도 잡히지 않아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헤거 큰스님께서 매주 어린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시키듯, 저희들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참선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참선의 재미를 알게 되어 시간만 나면 앉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철쭉 같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던 화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초심자이지만 초발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제 마음속의 무명을 걷어내고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발원하며 참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80여명의 27기 기초참선반 도반들이 심검당과 불이실을 가득 메우고 앉아서 큰스님의 점검을 받아가며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늘 저희들을 점검해 주시고 길을 알려 주시는 큰스님께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정명도(오인숙)

### 박물관 소식



탄허기념박물관  
TANHEO MEMORIAL MUSEUM

◆2016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오감만족 인성 숲속'  
교육기간 : 4~10월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오후 12:20 / 오후2사~오후4: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연중진행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http://www.tanheo.org)

### 방하착-극락암엔 집착이 없다

동료가 병가를 냈다. 허리 디스크는 만성이고 어깨 쭈시는 것도 참아왔는데, 이젠 손가락이 떨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틴틈이 침 맞으며 견뎠다. 더는 견딜 수 없어 2개월 병가를 냈다. 앞에 앉은 동료는 늦게 나타났다. 예전에 협심증으로 수술 받았는데 정기 검사 받았단다. 디스크, 당뇨, 고혈압, 갑상선 이상, 목 디스크……치료받는 친구가 끝없다. 최근에 유독 자주 본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산다.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나이키 셔츠 입히고, 죽을 병 걸린 인도네시아 섬 어린이를 살린 것은 자본주의였다. 스위치 누르면 밥하고, 스위치 돌리면 깨끗한 불 올라오고, 스위치 누르면 빨래해주는 생활을 자본주의가 가져다주었다. 자본주의는 남보다 뛰어난 제품, 뛰어난 서비스, 더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개인에 의해 굴러간다. 경쟁과 스트레스는 자본주의의 또다른 이름이다. 성장과 경쟁, 스트레스로 동료가, 누군가의 남편이 오늘 병원을 다녀왔다. 그래서 묻는다. 자본주의는 행복을 주었는가? 자본주의를 떠나서 살 수는 없을까? 답은 단호하다. 떠날 수도 없지만, 떠나면 더 불행해진다.

불교는 행복의 문제를 다른 어떤 종교나 이념보다 중요하게 다룬다. 행복의 본질과 행복을 얻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궁리했다. 부처님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갈망을 멈추는 데 있다고 했다. 집착으로 병이 나고, 집착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내려놓을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입찰을 앞두고 초조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 내려놓자는 생각이었다. 기차를 탔다. 부산 사는 친구

를 찾았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소주 한잔 했다. 태종대로 향했다.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바위에 부딪혀 죽는다는 걸 재빠르게 계산했다. 자갈치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다. 가야 밀면은 맛있었다. 서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봤다. 백화점에서 신제품을 살렸다. 회사 일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저녁에는 통도사로 향했다. 통도사 비로암에서 쉬고 싶었다. 밤 아홉시, 택시가 차길 끝인 극락암에 나를 떨어 구웠을 때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비로암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극락암 스님들도 잠들었다. 원주 스님을 찾았다. 곤한 잠을 깨우니 반가울 리 없다.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손님 받지 않는 절이다. 이런 원칙도 어둠 속에 다시 절 아래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처지와 스님의 자비심에는 손들었다. 공양주 보살 옆방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날 새벽, 공양을 마치고 비로암과 백운암에 올랐다. 소나무에 걸린 하늘은 더욱 높다. 숲을 스쳐온 바람에는 솔내음이 난다. 바람과 하늘을 번갈아 보며 걸었다. 다리 아프고 배가 고프다. 백운암까지 가야 밥이 있고, 휴식이 있다. 그렇게 세 시간을 걸었다. 백운암과 영취산 정상을 거쳐 다시 비로암에서 공양했다. 자장암에 들렀고, 통도사 금강계단에 참배했다.

서울 오는 버스를 탔다. 다음날 깨달았다. 회사 일이 머리를 떠났다! 진정 떠나면 떠났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다. 극락암 높은 하늘과 솔바람에 버리고 왔다. 이렇게 내려놓는구나! 극락암에는 집착이 없구나! 머릿속이 가장 깨끗했던 시간으로 나는 기억한다.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글 / 馬加(최현우)

### 한 수 배웠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앞에 작은 교습소를 열었다. 지난 해 TESOL(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롱에서 잠만 재우는 것이 아깝기도 했고 가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다. 빠듯한 예산으로 직접 실내를 꾸미고 주변 상가에 떡을 돌려 조촐하게 개소식을 했다.

아침 9시면 교습소에 나와 청소를 하며 아이들이 와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꽤 달콤했다. 문제는 홍보였다. 전문 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직접 나서기로 하고 큰 가방 두 개에 홍보 전단과 초코 과자를 가득 채워 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교문 앞은 이미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을 홍보하러 나온 사람들과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전단지를 순순히 받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몇 발짝 멀리 떨어져 건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뛰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길 위에는 아이들이 버린 홍보 전단지가 이리저리 날리고 찢겨 뒹굴었다. 예산은 했지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외면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학원을 홍보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하는 것을 결심으로 지켜보다가 준비해 간 것을 간신히 나누어 주고 돌아오며 속상했다. 주눅거리며 눈치 볼 일은 아니었잖아.


따뜻한 별이 창문 가득 퍼지던 어느 오후, 젊은 남자가 교습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쑥한 차림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경계하지 말라며 신분증까지 꺼내 보여 주었다. 선교사라고? 잠깐 망설이다 이내 흔쾌하게 의자를 내 주었다. 나는 네 종교 내 종교 차별 두는 웅졸한 사람은 아니니까. 예의 바르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길을 가다가 교습소 간판에 엘리사라는 이름이 보이

기에 들어왔다. 엘리사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예언가로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장님이 기독교 신자일 것이라 생각되어 좋은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한다. 영어 성경책을 교재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면 어떻겠나. 성경 공부와 영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눈을 반짝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고 논리적이었다. 신뢰가 가는 자신감이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아이들에게 성인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몰입해서 듣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저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녀요. 우리도 양질의 영어 불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들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떠났다.

쿨하게 물러난 그와는 달리 나는 내내 개운치 않았다. 영어 성경책은 그렇다고 해도 엘리사는 뭐란 말인가. 단지 '고귀한 탄생'이라는 의미가 좋아 엘리사를 덜컥 영어 이름으로 가져다 쓰다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서둘러 엘리사를 검색했다. 그가 말한 성경 속 인물은 Elisha(Eliseos, Elisee)이며 영어 발음은 '일라이샤', 우리말로 '엘리샤'라고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영어 이름은 엘리사(Alyssa). 다행히 그 예언자와는 다른 이름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젊은 선교사에게 한 수 배웠다는 느낌은 며칠 간 계속됐다.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갖고 집중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며칠 뒤 초등학교 학부모 총회가 있던 날. 가방 가득 홍보 전단을 들고 다시 학교로 향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선교사를 떠올리며,

글 / 전현서(국제포교사)



## 고전멘토

- 나를 성장시키는 열 권의 고전 -

**데미안, 어린 왕자, 헨릿, 자칼박사와 하이드 씨**  
고전 속 주인공이 들려주는 불안, 기쁨, 슬픔, 성장, 환희의 이야기

“고전 멘토들은 이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보며 더욱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에 감염되어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잘 것 없는 조각배를 타고 저 운명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결국 파멸해가는 뒷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슬픔과 고통 위에서 피어나는 존엄한 인간을 끝내는 마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 이고 '너' 이며, 마침내 '우리' 인 것입니다.” - 책의 서문 중에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로 인해 늘 불안하고 고독한 청소년들에게 고전 속 열 명의 멘토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담긴 책. 『고전멘토』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정, 한수영 지음 | 김정진 그림 | 꿈결 펴냄

### 전도몽상 인도 III - 인도가 고맙다

쉬라바스티에서 룸비니로 향하는 도로는 매우 험했다. 도로가 움푹 파여서 버스가 요동을 치며 전진을 하다 뒷좌석의 도반이 버스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기까지 했다. 마야 왕비는 이 길을 어떻게 왔을까? 정글에 묻힌 룸비니 유적은 UN과 각국의 지원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설계는 일본인이 하고 우리나라 삼부토건이 공사를 했다고 한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마야데위 사원에서 예를 올리고, 첫 목욕을 하신 연못을 보고 잠시 앉았다. 2300여 년 전 아소카왕이 세운 석주에 새겨진 브라호미 문자가 해독되어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룸비니에서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진 후 인력거를 타고 국제 사원지역을 향했다. 대성석가사에 들러 한국 스님을 뵈니 반갑고 고맙다. 대웅전이 제법 번듯하고 커서 타국에서 20여년을 고생하신 보람을 본다. 부처님의 법은 법을 따르는 자를 지킨다더니.....

다음날, 부처님의 열반지인 푸시나 가르를 향하는 마음은 숙연했다.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돌아가신 부처님, 늙고 병든 몸으로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시고 열반에 드신 위대한 스승님을 되새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곧추 세웠다. 조계종 출판사의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며 갔는데, 「대열반경」이 없어 아쉬웠다. 아난존자의 한탄, 마지막 제자인 수밧다의 성도와 죽음, 사라쌍수를 향하시는 부처님을 떠올리니 이 여행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부처님과 가르침의 선물이다.

현재의 열반당은 13세기에 이슬람의 침공으로 없어진 것을 미얀마 스님들이 재건한 것이다. 열반당은 붉은

사암으로 하라발라 스님이 서기 500년경에 만든 것이 복원된 것이다. 열반상 하단부에 말리부인이 울고, 아난존자와 하라발라 스님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도 관리복을 입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영어로 설명을 하더니 보시를 요구한다. 인도는 이렇게 성과 속이 어울려 담금질을 한다. 기원정사에서는 직원조차 구걸을 하나 싫어 껌짜 놀랐더니 무안해하면서 물러섰다. 다시 인도를 가도 이 보시와 염오 사이의 줄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겐지즈강변의 바라나시에서 힌두교 뿌자 의식을 보고 화장터를 보았다. 새벽의 바라나시 뒷골목은 밤거리와는 많이 다르다. 밥 냄새와 화장장 냄새가 어울려 누구라도 삶과 죽음을 떠올리리라. 지면상 다 쓰지는 못하지만 산치대탑이나 영축산, 전정각사, 초전설법지인 녹야원, 날란다대학, 칠엽굴, 파드나 박물관과 뉴델리의 박물관,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장소였다.

영축산에서 보드가야로 향하는 밤길은 불빛도 소음도 없이 적막했다. 어두운 무렵인데 소년 소녀들이 무리를 지어 숲으로 간다. 화장실로? 불교유적지가 있는 인도 비하르주와 뿌라데쉬주는 인도의 25주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 유적지를 다니다보면 가난과 가난을 해결하는 행위 앞에서 난감하게 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여라”는 자비발원이 무거웠다. 행복이 무엇일까? 이 무거움과 혼란은 왜 일까?

인도 여행은 다른 여행과 달랐다. 귀국 후 한동안은 성지에서의 보람 있던 순간만을 떠올리고 혼란은 가

졌다. 그리고 인도 공부를 했다.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보고 다른 도반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시간이 완충제가 되어 음미할 여유가 생겼다. 인도는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도,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종을 받아들이며 옛 것을 잃지도 새 것을 거부하지도 않은 불사조다. 미국이 개별성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용광로라면, 인도는 모든 요소가 각기 남아서 개체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혼합체란다.

인도가 내게 준 선물은 무엇인지도 모를 다양한 고정 관념이 나에게 있고, 고정된 것이 흔들려서 고통 받았다는 깨우침이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세계는 정말로 넓고 다양하다. 인도가 무엇이든지 결국 이 오온이 문제를 만들고 힘들어 한다. 2500년 전 부처님도 고통에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자유인이 되련다.

글. 사진 / 적음심(황정림)



룸비니 Mayadevi temple



열반당에서

#### 선방 소식

##### 성인 참선반

매월 첫 주 진행되는 참선집중정진일(월요일, 화요일)은 참선반 전원이 참석하여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4월 참선집중정진일에는 헤거 큰스님과의 담선회(즉문즉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 4월 참선 집중정진일 4/4(월) ~ 4/5(화) 오전 10시~오후 4시
- ▶ 헤거 큰스님과의 담선회 4/5(화) 오후 3시

##### 청소년 참선반

2015년 7월~9월까지 청소년 기초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금강선원에서 헤거 큰스님 법문을 비롯하여 이완명상과 오체투지, 집중명상, 전두엽 훈련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완명상과 오체투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어 한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집중표를 활용하여 시선과 정신을 한곳에 모아 집중하는 훈련인 집중명상과 학습계획과 미래를 설계해보는 주제명상으로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내 몸이 반한 병원

# 한성한방병원

02-543-7533 | www.hansungmk.com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 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 14시 3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교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제4기 금강생지지도과정 6월4일(토)~12월10일(토) 오후 1시

문화특강 안내

기초한자반 매주(수) 오후 1시
한문반(도덕경 특강) 매주(수, 금)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선원 일정 ( 4. 1~3. 30 )

4/1(금) 21일기도 입재 9:20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토) 명상아카데미대강좌 (14:00)
3(일)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4(월)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참선반 집중훈련 10시~16시
5(화) 참선반 집중훈련 10시~16시
6(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7(목) 초하루기도 9:20
8(금) 금강선원개원 28주년 기념법회 10:30
대승기신론 휴강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9(토)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10(일)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11(월) 선하불교대 성지순례
기초참선 14:30
13(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15(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16(토)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17(일)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18(월)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20(수) 순례법회 (갑사, 신원사)
21(목) 21일기도 회향 9:20
보름기도 9:20
22(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3(토)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19:00~22:00
24(일) 지장재일 9:20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수계법회 14:00
25(월)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27(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9(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혜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혜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15장

New 맹자 진심장(혜거스님).....26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일요일 점심공양봉사에 동참해주세요

평일 봉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요일
봉사에 참여해보십시오. 봉사는 수행입니다.
문의 : 사무실 02-445-8484

서울 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에 동참해주세요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위탁으로 조계사에서 운
영 지원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에 동참하세요
일시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00~14:00
문의 : 현진성 (010-5211-9976)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
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
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혜거 큰스님
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
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
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
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
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
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
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
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도재 대중공양 | 의락성 자정행 김정묵 박병수 법연심 능지행 진여심 양승제 혜명심 임태순 김종영 하도혁 정원영 박수복 정명심 기덕용 최정환 조화순 장원순
장동권 최여래행 무주상 해광월 김철수 여여심 김경표 이태경 김호택 정경숙 백종민 자광명 진도화 김종우 김진열 최철용 천이행 송소이
대 중 공 양 | 보리성 경낙현 하경식 윤정화 63선우회 백혜천 자련 김용순 이승현 조수정
보 시 들 | 무주상 무주상 이영순 서예반 도덕경반 채솔이영가
꽃 보 시 | 정성휘 청심
초파일 보시금 | 우숙희 이종균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구 좌 동 참
1-1343 마 정 수
1-1264 흥 세 의
1-1347 김 경 대
1-1346 김 태 훈
1-1345 이 경 숙
1-1344 김 명 환
1-1348 강 영 진

1-1349 한 덕 우
1-1350 무 주 상
1-1351 손 의 인
1-1352 송 민 수
1-1353 이 세 영
1-1354 김 종 남
1-1355 박 영 신

1-1356 김 가 영
1-1357 김 명 진
1-1361 김 동 례
1-1362 박 한 배
1-1363 박 정 찬
1-1364 박 소 영

화 엄 경 영 가 동 참
1-1342 조진연 영가
1-1358 김석배 영가
1-1359 김순덕 영가
1-1360 박병헌 영가



헤거 큰스님의 탄탄한 이론과 실참(實參)지도  
뇌연구 결과로 입증된 교육프로그램

# 2016 금강명상지도자자격연수 제4기 연수생 모집

## 연수신청

접수기간	2016년 4월 01일(금) ~ 5월 21일(토)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직접방문 : 금강선원 사무처 ( ☎02-445-8484 )	
	이메일접수 : ipc445@hanmail.net ※ 연수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사항 금강선원 홈페이지, 탄허기념박물관, 금강명상지도자 daum 카페, 금강선원 daum 카페	
신청자격	만30~55세 (기초 한글문서작업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사람)	
개강일	지도자2급 (8주) 개강 : 2016년 6월 04일 토요일 13시 지도자1급 (8주) 개강 :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13시 전문가과정(8주) 개강 :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13시	
지도법사	헤거스님 - 금강선원 선원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심성개발위원회 위원장	
동참연수비	금강명상지도자 2급	50만원
	금강명상지도자 2급 금강명상지도자 1급	90만원
	금강명상지도자 2급 금강명상지도자 1급 금강명상지도 전문가 과정	120만원
	※ 각 과정 별도 등록시 각 50만원	
등록방법	1. 연수참가신청서 제출 2. 연수비 입금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9-642342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교육일정

자 격 별	기 간	일 정	요 일	시 간
금강명상지도자 2급	8주	6월 04일~ 7월 23일	토	13시~18시
금강명상지도자 1급	8주	7월 30일~ 9월 25일 * 9월 17일 추석연휴로 쉬 * 9월 24일(토) 강의없음 * 9월 25일(일) 진행	토	13시~18시
전문가 과정	8주	10월 22일~12월 10일 * 10월 29일, 30일 워크샵 * 12월 17일 자격증 수여식	토	13시~18시

※ 본 연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수여 단체기관 과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성교육개발 인증위원회 위원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장 헤거